

## 핵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휘발유 1갤런의 가격이 2달러에서 4달러로 상승한 경우 사람들의 반응

- 경차구매 증가
- 온라인 수강 증가
- 스쿠터 판매 증가

보호무역정책

-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
- 수입과징금
- 수입할당제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

- 가격
- 소득
- 미래에 대한 기대

햄버거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화

- 핫도그의 가격
- 콜라의 가격
- 햄버거구입자의 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잼(jam) 원료인 포도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잼의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하락한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한다.

소비자잉여

-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지불용의라고 한다.
- 지불용의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각 소비자의 소비자잉여인 것이다 .
- 소비자는 항상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멜리사는 아이폰(iPhone)을 120달러에 구입하고 80달러의 소비자잉여를 누렸다. 멜리사의 지불용의는 200달러이다.

A는 자신의 시간이 1시간에 6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A는 B에게 2시간 동안 안마를 해줬다. B는 A에게 그 대가로 300달러를 줄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A는 B로부터 200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100달러이다.

배제가 가능한 재화는 사적재화와 클럽재이다.

공공재의 예는 국방이다.

공유자원의 예는 바닷속의 물고기이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총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은 규모의 불경제이다.

생산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는 생산함수이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줄어드는 현상은 한계생산물 체감 현상이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총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다.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때는 평균총비용이 하락하는 반면,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는 평균총비용이 상승한다.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이 기업은 생산량을 늘려야 하며,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크면 이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배 과수원 인부들의 임금 상승은 사과 과수원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을 왼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혁신은 노동시장의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일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주부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는 현상은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시장균형임금보다 임금이 높게 유지되는 원인

- 노동조합
- 최저임금제
- 효율임금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경쟁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을 책정하여 더욱 일할 의욕을 높이는 임금을 효율임금이라고 한다.

실질 GDP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물가수준의 지표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은 GDP 디플레이터이다.

GDP는 환경의 질과 자원봉사 모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핫도그 1개의 가격이 2달러고 햄버거 1개의 가격이 4달러라면 핫도그 30개는 햄버거 15개만큼 GDP에 기여한다.

재정적자로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면 대부자금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이자율은 상승한다.

재정흑자로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하면 대부자금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이자율은 하락한다.

어떤 폐쇄경제의 소득이 100달러고 정부지출은 20달러, 세금은 15달러, 투자는 25달러다. 이 경제의 소비지출은 55달러이다.

어떤 폐쇄경제의 소득이 100달러고 정부지출은 20달러, 세금은 15달러, 소비지출은 50달러다. 이 경제의 민간저축은 35달러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분산투자의 이득은 특정 기업의 위험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상장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체에 관한 불확실성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이자율이 10%라면 2년 뒤에 받을 100달러의 현재가치는 83달러이다.

어떤 나라 경제의 GDP가 500, 세금이 50, 민간저축이 50, 정부저축이 10이다. 이 나라의 투자는 60이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며,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연방준비제도가 은행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은 재할인율이다.

한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물가수준을 결정하며, 통화량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는 이론은 화폐수량설이다.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론은 화폐의 중립성이다.

실질변수

- 생산성
- 실질이자율
- 실질임금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시키는 가격은 실질환율이다.

한 나라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것은 순수출이다.

외국인의 국내자산 구입액이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순자본유출 감소이다.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은 총수요곡선이다.

총수요·총공급모형의 세로축(Y축)은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세금 인하, 주식시장의 호황 등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사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 자산효과
- 이자율효과
- 환율효과

총공급곡선은 장기에는 수직이고 단기에는 우상향이다.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단기적으로 산출량은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는 스택플레이션이다.

이자율이 변해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케인즈의 이론은 유동성 선호이론이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각 물가수준에서 화폐 공급량이 늘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정부구입이 증가하거나 세금이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세금이 인하되면 소비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세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이 감소하므로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확대재정 정책에 따른 이자율의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의 증가가 일부 상쇄되는 현상은 밀어내기효과이다.

경기침체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은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연구에서 나왔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의 증가는 단기에는 산출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에는 물가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면 각 물가수준에서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여 이자율이 상승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유동선 선호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균형수준보다 높은 경우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자율은 하락한다.